

보도설명자료 (‘22. 8. 9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개문냉방 영업에 대해서는 코로나 방역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본적으로 매장 자율에 맡기되, 적정온도(26℃) 지키기 캠페인 등을 통해 방역과 절전을 함께 유도 중임
(8.9일자 서울경제 「전력난에도 ‘개문냉방’ 블랙아웃 재연되나」 보도 설명)

□ 정부는 하계 전력수급과 코로나 방역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시 공공부문 냉방온도 시간조정 등 추가적인 시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임

※ 문의: 에너지효율과 허정수 과장 (044-203-5140) / 박이용 사무관 (044-203-5146)

1. 보도내용

□ 휴가복귀 등으로 전력수요가 늘어 최대전력이 9만 MW를 웃돌 가능성이 높은 등 올여름 전력수급이 최대고비인데, 방역수칙으로 단속이 애매해 개문냉방 영업이 여전하다고 보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□ 개문냉방 영업 관련해서는 코로나 방역상황*, 매장별 여건이 다른점 등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매장 자율에 맡기되,

* 비말감염 확산위험을 고려해 수시 개문을 통한 자연환기를 원칙으로 하되, 매장 여건을 고려해 2시간마다 1회(10분이상) 환기를 최소수준으로 권고

○ ‘적정온도(26℃) 지키기 캠페인’ 등을 통해 방역과 절전 참여를 함께 유도 중임

○ 이외에도 에너지 다소비사업자 대상 하계 휴가분산 권고, 에너지 캐쉬백 전국 확대 등 다양한 에너지 수요효율화 시책*을 추진 중임

* 전국 프랜차이즈(GS25, CU, 이마트, 홈플러스 등 54,000여개 매장)와 함께 적정온도(26℃) 지키기, 휴가분산 캠페인